달마가 내 눈 앞에 나타난다면…



김양수 作, 무애자재.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
황청원 글, 김양수 그림
책만드는집 / 1만4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황청원 · 김양수의 달마 시그림책
달마 시와 달마 그림 75편 수록
출판기념회 및 백팔 달마도 전시
3월 26일~4월 1일 인사아트프라자

"꽃 한 송이 드리지요 / 무애자재의 꽃입니다. / 무엇에도 걸림 없음 부러워 / 그래서 드리는 꽃이지요" - 무애자재.

황청원 시인과 김양수 화백이 펴낸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는 75편의 달마 시와 75폭의 달마 그림을 담고 있다. 시 그림책이다. 황청원 시인 특유의 사유가 담긴 짧은 시에 김양수 화백의 새로운 해석이 그려낸 달마도는 독자에게 진한 인상을 남긴다.

"달마가 온 자리는 남인도 칸치푸람엔 / 아무리 둘러봐도 달마의 흔적이 없다 / 오래전 달마는 말없이 먼 길을 떠났단다 / 이미 달마의 집은 내 안에 오직 우뚝하다" - 달마의 집은.

달마, 선종의 불가에서 '달마'는 언어적 설명이 쉽지 않은 대상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의 '개념'이다. 그래서 달마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는 것일까. 아니면 쉽지 않은 각자의 마음을 그렇게 이리저리 그려보는 것일까.

황청원 시인은 달마가 2천년을 건너 자신 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 마음을 시로 썼다. 그 먼 곳까지, 아무리 둘러봐도 달마의 흔적은 없었고, 먼 길을 떠났다는 전설만 들리고, 하지만 분명한 그의 집인 달마.

오랫동안 수묵의 붓으로 선의 순간을 그려온 김양수 화백은 시인의 문장 옆에 달마의 집을 그렸다. 달마의 순간. 그의 붓은 늘 '순간'을 기다리는 삼매였다. 이번엔 달마. 색은 먹에서 시작되고 많은 색이 필요 없다. 주제가 달마니까. 그 동안 작은 그림으로 큰 그림을 그려왔던 김 화백은 이번에 경계를 더 없이 떠난 듯하다.

"우리는 꿈꿨었다 / 이 시대의 달마를 // 우리는 통했었다 / 달마를 사이에 두고 // 우리는 걸림이 없었다 / 달마의 인연 끈으로 // 우리는 받았었다 / 달마가 주는 미소까지 // 시 짓고 그림 그리는 동안 / 달마는 우리의 안락처였다"

황청원 시인과 김양수 화백은 3월 26일 오후 4시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1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4월 1일까지 책에 실린 작품을 전시한다.

지혜는 각자 내면에…스스로 마음 들여다봐야



반야심경
미야시카 유코우 감수,
정보현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 1만6천원

〈반야심경〉 쉽게 설명한 해설서
"의미 정확히 알면 감동 커져"

〈반야심경〉은 종파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친숙한 경전이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서와 해설서가 있어왔고, 꾸준히 독송과 사경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이 이토록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반야심경〉은 고작 262자(한문 본)의 짧은 경전임에도 방대한 내용을 품고 있어 '작은 대경전'이라 불린다. 언제든 독송하고 사경할 수 있을 만큼 친숙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이 깊은 세계가 숨어 있다. 이 경전의 매력은 바로 그 반전과 친숙함 속에서 펼쳐지는 심오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책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의 구절을 세세히 나눠서 현대어로 풀어냈다. 누구라도 그 이면에 숨은 심오한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책은 간결한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반야심경〉을 풀어낸다. 온갖 고뇌로부터 해방되는 과정과 어떤 수행단계에 있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또한 일러스트로 내용의 이해를 돕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책에서는 〈반야심경〉의 원문을 그대로 싣고 이를 해설한 후 일러스트와 도표, 사진 등으로 부연 설명을 붙여놓았다.

책에 의하면 〈반야심경〉은 전체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리와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게 되면 감동이 더욱 깊어지며, 〈반야심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책에서는 산스크리트어(일부는 팔리어) 원전과 대조하며 그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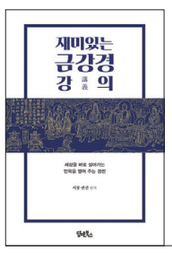
제1장에서는 반야심경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반야심경〉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경전이다.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출가자의 수행에만 활용했던 소승불교(부파불교, 상좌부불교 등)와는 달리,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대승불교의 이념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이러한 〈반야심경〉의 이해를 돕는 사전 지식들을 소개한다.

제2장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는 본격적으로 〈반야심경〉을 마디마디 끊어서 아주 세밀하게 해부한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화자는 관자재보살이다. 관자재보살은 명상 중에 부처님께 이끌리듯 깊은 반야바라밀다라는 수행에 들어갔다. '행심반야바라밀다시'를 '그 깊은 수행을 하던 때'라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 명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이 명상을 통해 관자재보살은 하나의 수행을 완성한 것이다.

〈반야심경〉은 세상에 출현하는 모든 부처들이 부처가 된 까닭은 진언(만트라)인 반야바라밀다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반야바라밀다를 독송하며 수행하면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고 전한다.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차원에 도달하면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그곳으로 향하는 계단이 되어주는 것이 반야바라밀다이다. 수행 단계가 상징하는 각 층은 이미 각자의 내면에 존재한다. 우리의 내면에는 시야가 확 트인 위층이 있음에도 대부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번민하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각자의 안에 있다. 〈반야심경〉은 그 내면의 지혜 즉, 각자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일러준다.

박재완 기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서봉 반산 편저
담앤북스 / 1만8천원

명료한 강설에 풍부한 예화를 곁들여
허상에 집착하는 현대인에 삶의 지혜

불법의 정수를 담고 있는 〈금강경〉은 본래 〈급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하여, '금강 같은 지혜로 저 언덕을 건너가는 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는 오랜 시간 국내 여러 사찰에서 강사 및 교수사를 역임해 온 반산 스님이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명료한 강설에 풍부한 예화를 곁들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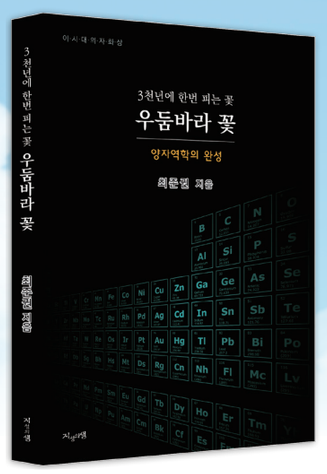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강경〉은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삶의 지혜를 전한다. 하지만 다소 난해한 문장과 심오한 철학적 사상 때문에 〈금강경〉을 바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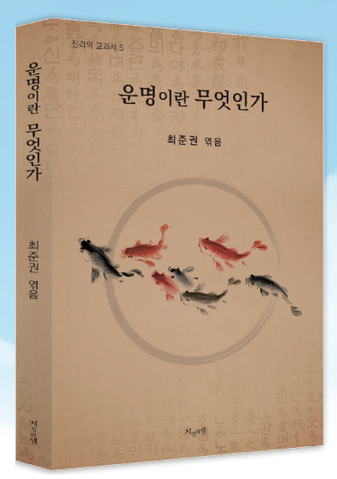
2500년 전 부처님과 수보리가 나눈 대화를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성취와 경쟁을 강조하며 더 많은 것을 얻거나 지켜야 한다. 그래서 대중은 늘 불안해하며 실체도 없는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금강경〉은 '나'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전한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는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금강경〉이 전하는 삶의 지혜다. 이렇듯 〈금강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나아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마음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는 〈금강경〉의 한자 원문에 음을 달고, 조계종이 펴낸 우리말 독송을 나란히 실었다. 여기에 반산 스님 특유의 명료하고 유쾌한 강설을 덧붙여 자칫 놓치기 쉬운 경문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찬히 짚어준다. 아울러 강설 사이사이에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 흥미로운 선화를 함께 소개해 흥미를 더한다.

박재완 기자







3천년에 한번 피는 꽃
우둠바라꽃/양자역학의 완성
이 세상은 그물망처럼 심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과거 100년 이상을 풀지 못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풀 수 있었을까
최준권 지음/신국판/무선/272쪽/값16,000원

자아를 되찾고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길
운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며 변화를 통해
윤회하고 있다. 넓은 눈으로 창조와 진화를 관찰하면
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준권 엮음/신국판/무선/264쪽/값16,000원

부처님의 말씀으로 엮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의 가르침
3천년 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극락에서
머무시던 부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받아 왕자로 태어나셨다.
최준권 엮음/ 신국판/무선/256쪽 / 값16,000원

지성의샘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6-11 / TEL. 02-2285-0711 / FAX. 02-338-2722 / 이메일 gonggamsa@hanmail.net